

도, '정책실명제'로 투명성 높인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지진환경 분석 용역' 등 중점관리대상사업 32건 선정 공개

전북도가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도정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의견과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32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과 '전라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근거로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해 관련된 담당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도는 2013년부터 매년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해 사업추진 이력을 관리하고, 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과 각종 도정현안,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 도민생활에 영향을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인근지역에 지진발생 현상을 조사·분석해 지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진환경 분석 용역',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



송 지사, 전주서문초 학생들과 즐거운 인터뷰 송하진 지사는 지난 28일 전주서문초 학생 4명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급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총 32건의 정책사업 및 조례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써 도민들에게 공개된다.

해당 대상사업은 선정기준별로 총사업비 100억 이상사업 13건,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6건,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제정 11건, 기타 2건이 선정됐고, 또한 이는 분야별로 복지·환경 분야 8건, 건설·교통 분야 7건, 농축수산물 분야 5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3

건, 경제·산업 분야 3건, 기타 분야 6건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6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관리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중 진행단계에 있는 것은 사업내역을 통해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현황 등을 공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에 추진경과별 담당자의 직급 및 실명이 기재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

개하고 있다. 추가 선정된 32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시부터 완료까지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관련자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도민들에게 공감 받는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무료체험

5월 13세 이하 9일 투표확인증 소지 방문객

전북도는 오는 5월에 13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에 한해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테마체험관 및 4D 애니메이션 무료관람과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는 투표확인증(4D 제외)을 실시한다. 4D 애니메이션은 에너지 과소비로 고갈된 화석연료로 인해 멈춰버린 놀

이동산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 '미래'와 '빠에로'의 이야기이며, 영상을 보며 진동자 및 분수 등 오감을 자극하는 4D 입체영상이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는 테마체험관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상징시설인 대형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교육활용에 도움을 주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사업단은 어린이들을 위해 셰플러 태양열 조리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 정보화 기본계획 추진방향 논의

전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보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의견수렴 및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한국지정정보개발원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전북도 정보화 추진방향을 수립한다. 정보화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정보

화 현황 및 동향분석, 정보화 미래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수립, 정책개선 방안 및 선도 사업 발굴, 정보화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해 2018년부터 세부 전략 및 모델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도청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8일부터 수강자 선착순 모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2017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전북도청도서관이 선정됐다.

전북도청도서관은 '답하라! 인문의 보고(寶庫) 전라북도'라는 주제명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은 '전주성(全州城)에 깃든 근현대 인문학 기행'이라는 주제하에 전주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

화를 보였는지 강의를 듣고, 그 흔적을 탐방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우리정서와 풍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속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변의 마을을, 돌담, 선돌 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의미를 탐구해보고 직접 탐방해 보는 '풍속에서 찾는 인문학 탐색'이 예정돼 있다.

수강자 40명을 8일부터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전화(☎280-2451, 2452), 전북도청도서관 홈페이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전북도는 5월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북도는 물놀이 관리지역을 10개 시군에 109개소, 위험구역은 8개 시군에 45개소를 지정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6.1~8.31)전 물놀이 관리지역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시설 정비 및 배치와 기존 시설 또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형태·색상·외국어 병행 표기 등 디자인이 개선된 물놀이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도, 재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상' 수상

지역경기 영향 큰 '민간 실집행' 전국 최고... 인센티브 7000만원 특교세 확보

전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인센티브로 7,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3월말 기준 총 1조5,404억 원을 집행해, 신속집행 1분기 정부 목표액 1조1,617억원의 132.6%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129.26%) 대비 3.34%p 높은 실적이다.

최근 글로벌 저성장과 내수 둔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연초부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해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기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간 실집행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신속집행 취지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전북도는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자금·지출·사업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민간실집행을 제고와 밀접한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속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선금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국내의 경제 여건의 악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1억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인재용 기자

제19대 대선, 도내 선거인수 152만4791명 확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82.0%인 총 152만 4,79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수 148만2,705명보다 4만2,086명(2.8%)이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남자가 75만1,252명, 여자가 77만3,53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19세가 2만4,857명(1.6%)이고, 20대 21만9,087명(14.4%), 30대 22만2,111명(14.6%), 40대 29만2,584명(19.2%), 50대 30만655명(19.7%), 60대 21만9,269명(14.4%) 70대 이상이 2만

6,228명(16.2%)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완산구의 선거인수가 28만9,36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익산시 24만6,593명, 전주시덕진구 23만465명 순이며, 장수군은 2만9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령 선거인은 남자 106세(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거주), 여자 115세(전북 장수군 장계면 거주)다. 한편,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마선거구)의 선거인수는 총 6만5,720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3만1,267명, 여자는 3만4,453명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